

## 갈라 4,28-31은 우의인가? 예형론인가?\*

김상우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서신학 교수

### 들어가는 말

1. 갈라 4,28-31의 해석학적 접근법에 관한 선행연구
2. 갈라 4,28-31과 고대 유다교 전통에 근거한 ‘우의’에 관한 논증
  - 2.1. 디아스포라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
  - 2.2. 팔레스티나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
3. 갈라 4,28-31과 ‘예형론’에 관한 논증
  - 3.1. 제1 바오로 서간 속 ‘예형론’의 특징
  - 3.2. ‘이사악-그리스도의 암묵적 예형론’으로서 갈라 4,28-31
  - 3.3. 갈라 4,22-27과 4,28-31의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

### 나가는 말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 들어가는 말

갈라 4,24의 ἀλληγοούμεαι<sup>1)</sup>는 구약과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hapax이다. 이는 4,21-31을 ‘우의’(寓意, allegoria)<sup>2)</sup>로 규정하게 하는 본문 속 논거가 된다. 한편 4,29의 ‘그때처럼’이라는 뜻의 ὥστε τότε와 ‘지금도 그렇게’라는 뜻의 οὕτως καὶ νῦν은 4,21-31을 ‘예형론’(豫型論, typologia)<sup>3)</sup>으로 특징짓는 근거이다.

4,21의 νόμος에 대한 바오로의 해석학적 이해와 4,22-27의 ‘사실에 근거한 우의’(allegoria in factis)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연구들<sup>4)</sup>에 이어 본고에서는 4,28-31을 연구 본문으로 설정한다. 4,28-31이 ‘우의’인지, ‘예형론’인지 규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조망(眺望)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대 유대교 전통에 비추어 4,28-31이 ‘우의’라는 가설을 검토한 뒤, 세 번째로 4,28-31이 ‘예형론’이라는 주장 또한 학문적 타당성이 충분한지 검증할 것이다. 본 논문은 4,28-31을 주석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구약성경 속 ‘이사악과 이스마엘 이야기’에 대한 바오로의 재해석, 즉 그의 해석학적 접근법을 ‘밧그림’처럼 그리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는다.<sup>5)</sup>

- 1) 갈라 4,24의 ἀλληγοούμεαι는 ‘다른’이라는 뜻의 ἄλλος와 ‘말하다’라는 뜻의 ἀγορεύω로 구성된 ἀλληγορέω의 현재 분사, 수동태, 중성, 복수, 대격이다. 참조. A. Bailly, *Dictionnaire grec-français*, (Paris: Hachette, 1963<sup>26</sup>), 83;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9<sup>4</sup>), 39; H.G. Liddell -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sup>3</sup>), 69.
- 2) Héraclite, *Allégories d'Homère*, trans. F. Buffière, (Paris: Les Belles Lettres, 1962), 4: “한 가지에 대해 말하며 전혀 다른 두 번째 것을 지칭하는 방식을 우의라 부른다.” *Rhétorique à Hérénus*, trans. G. Achard, (Paris: Les Belles Lettres, 1989), 188: “우의란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가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기법이다.”
- 3) T. Todorov, *Symbolisme et interprétation*, (Paris: Seuil, 1978), 112: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사이의 특별한 관계, 즉 성취(accomplissement)의 관계만이 예형론을 가능하게 한다. 두 사건 사이에 점진적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을 예고하고(annonce)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을 성취한다(accomplit).” R.P.C. Hanson, *Allegory and Event. A Study of the Sources and Significance of Origen's Interpretation of Scripture*, (Louisville -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7: “예형론이란 성경에 기록되거나 예언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성취(the fulfillment of a similar situation)로 현재나 과거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 4) 참조. 김상우, 「갈라 4,21의 νόμος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신학전망』, 217(2022, 여름), 2-33; 김상우, 「고대 유대교 전통에 비추어 본 갈라 4,22-27: ‘상황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42(2023, 여름), 43-65; 김상우, 「갈라 4,21-27의 ‘사실에 근거한 우의’: 고대 유대교 전통에 비추어 본 ‘두 계약’」, 『신학전망』, 222(2023, 가을), 36-68.
- 5) 필자는 갈라 4,21-31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학적 접근법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참조. 김상우, 「갈라 4,21-31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학과 철학』, 35(2019, 가을), 101-133). 본 논문은 갈라 4,28-31에 대한 바오로의 해석학적 접근법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다.

## 1. 갈라 4,28-31의 해석학적 접근법에 관한 선행연구

‘갈라 4,28-31은 우의인가? 예형론인가?’라는 질문에 주석학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는데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연구 본문을 포함하는 4,21-31이 ‘우의’라는 의견이다. 24절의 ἀλλήγορεύματα와 25절의 συτοιχεῖ는 이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의 공통된 논거이다. 봉시르방(J. Bonsirven)<sup>6)</sup>, 바레트(C.K. Barrett)<sup>7)</sup>, 롱에네커(R.N. Longenecker)<sup>8)</sup>, 위더링턴(B. Witherington III)<sup>9)</sup>, 에슬러(P.F. Esler)<sup>10)</sup>, 디 마테이(S. Di Mattei)<sup>11)</sup>는 4,21-31 전체를 ‘우의’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학자들 중 4,21-31 속 바오로의 논증을 팔레스티나계 유다교 전통의 ‘우의’라고 생각하거나, 디아스포라 유다교 전통의 ‘우의’라고 규정하는 이들로 의견이 갈린다. 첫 번째 가설의 지지자들은 4,28-31을 포함한 4,21-31이 ‘우의’라는데 한목소리를 내지만 해당 본문이 정확히 어떤 전통에 따른 ‘우의’인지에 대하여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둘째, 연구 본문을 포함하는 4,21-31이 ‘예형론’에 가깝다는 가설도 제기된다. 루터(M. Luther)는 4,28-31을 주석하며 “이제 그[바오로]는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사용한다.”<sup>12)</sup>라고 언급했는데, 이 해석은 후대에 직·간접적 ‘영감’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보나르(P. Bonnard)<sup>13)</sup>, 마틴(J.L. Martyn)<sup>14)</sup>, 제르베르(D.

- 
- 6) J. Bonsirven, *Exégèse rabbinique et exégèse paulinienne*, (Paris: Beauchesne et ses fils, 1938), 309-310.
  - 7) C.K. Barrett, “The Allegory of Abraham, Sarah, and Hagar”, in *Rechtfertigung. Festschrift für Ernst Käsemann zum 70. Geburtstag*, ed., J. Friedrich - P. Stuhlmacher - W. Pöhlmann, (Tübingen -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J.C.B. Mohr, 1976), 10-16.
  - 8) R.N. Longenecker, *Galatians*, World Biblical Commentary 41, (Dallas: Word Book Publisher, 1990), 146.149.208-210.
  - 9) B.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W.B. Eerdmans, 1998), 326-327.330.
  - 10) P.F. Esler, *Galatians*, New Testament Reading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3), 206.210.212.214.
  - 11) S. Di Mattei, “Paul's Allegory of the Two Covenants(Gal 4.21-31) in Light of First-Century Hellenistic Rhetoric and Jewish Hermeneutics”, *New Testament Studies*, 52(2006), 104-109.
  - 12) 말틴 루터, 『말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상)』, 제1-4장, 1535년판, 김선희 옮김, (용인: 루터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656.
  - 13) P. Bonnard, *L'Épître de Saint Paul aux Galates*,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9,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1972), 96-97.
  - 14) J.L. Martyn, *Galatians*, The Anchor Bible 33A,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436.

Gerber)<sup>15)</sup>, 라스투앙(M. Rastoin)<sup>16)</sup>, 그린-맥크레이트(K. Greene-McCreight)<sup>17)</sup>는 29절의 ὡστε τότε와 οὕτως καὶ νῦν을 예형론적 특징으로 꼽기는 하지만, 해당 본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형론’인지 밝히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들은 4,28-31의 기저(基底), 즉 바오로의 해석학적 전망(展望)에서 어떤 ‘예형론’이 잠재적 가능태로 고려되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을 보완하는 세 번째 가설에 따르면 4,22-27은 ‘우의’이지만 4,28-31은 ‘예형론’이다. 코스그로브(C.H. Cosgrove)<sup>18)</sup>, 한센(G.W. Hansen)<sup>19)</sup>, 레가스(S. Légasse)<sup>20)</sup>, 한슨(R.P.C. Hanson)<sup>21)</sup>, 자냐(A. Gignac)<sup>22)</sup>, 드 보어(M.C. de Boer)<sup>23)</sup>, 키너(C.S. Keener)<sup>24)</sup>가 이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띠는데, 이 가설이 개연성과 설득력의 측면에서 비교적 균형 잡혀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22-27절과 28-31절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탐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세 번째 가설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다. 결정적으로 대다수 주석가는 28-31절 속 바오로의 논증과 고대 유다교 전통 사이의 해석학적 공통분모를 지엽적·미시적·단편적으로만 다룰 뿐 심화시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므로 공시적 관점에서 22-27절과 28-31절의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한편, 통시적 관점에서 28-31절의 신학적·해석학적 주제를 포괄적·거시적·체계적으로 탐구해

- 
- 15) D. Gerber, “Ga 4,21-31 ou l’indéfinissable méthode?”, in *Typologie biblique de quelques figures vives*, ed., R. Kuntzmann - P. Beauchamp - E. Bons - C. Coulot et alii, *Lectio Divina* hors-série, (Paris: Cerf, 2002), 165-176.
- 16) M. Rastoin, *Tarse et Jérusalem, La double culture de l’Apôtre Paul en Ga 3,6-4,7*, *Analecta Biblica* 152,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2003), 65-66, n. 99.
- 17) K. Greene-McCreight, *Galatians*, Brazos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Bible, (Grand Rapids: Brazos Press, 2023), 121-122.124.
- 18) C.H. Cosgrove, “The Law has given Sarah no children(Gal. 4:21-30)”, *Novum Testamentum*, 29(1987), 221, n. 12; 231-234.
- 19) G.W. Hansen, *Abraham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Context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9, (Sheffield: JSOP Press, 1989), 210.
- 20) S. Légasse, *L’épître de Paul aux Galates*, *Lectio Divina Commentaires* 9, (Paris: Cerf, 2000), 361-366.
- 21) Hanson, *Allegory and Event*, 83.
- 22) A. Gignac, “Lorsque Paul ‘raconte’ Abraham, Agar et l’autre femme”, in *Analyse narrative et Bible*,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91, ed., C. Focant - A. Wénin, (Leuven - Paris - Dudley: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466-468.
- 23) M.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295-296.306.
- 24) C.S. Keener,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213-221.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4,28-31이 ‘우의’인지, ‘예행론’인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본고의 방법론적 이정표를 세워 준다.

## 2. 갈라 4,28-31과 고대 유다교 전통에 근거한 ‘우의’에 관한 논증

제2 성전 시대 유다교는 획일화된 단일체나 일관성 있는 종교적 모델보다<sup>25)</sup> 분과적 경향의 다형적(polymorphe)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sup>26)</sup> 따라서 4,28-31이 ‘우의’라고 규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려면, 여러 유다교 전통 곧 디아스포라 전통과 팔레스티나 전통에 따른 ‘우의’와 연구 본문을 다각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2.1. 디아스포라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

킬리키아의 타르수스 사람 바오로<sup>27)</sup>와 알렉산드리아의 필론(Philo Alexandrinus, 기원전 20-42)은 동시대를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두 인물 모두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각자의 신앙 공동체에게 ‘우의’를 통해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집필한 갈라티아서 연구 본문과 필론의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성서 신학적으로 유의미한 접근이다.<sup>28)</sup>

25) 샌더스(E.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7), 6.70.552)는 ‘계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를 표방하며 제2 성전 시대 팔레스티나 유대이즘을 획일화된 종교적 모델처럼 소개한다. 반면 마타(Y. Matta)는 샌더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마타가 비판하는 샌더스의 가설에 따르면 “바오로는 자신을 체계적 사상가로 소개하지 않지만 결론은 일관성이 있다.”(Y. Matta, *À cause du Christ: Le retournement de Paul le Juif*, Lectio Divina, (Paris: Cerf, 2013), 161)는 것이다. 실제로 편지에서 바오로는 수신자들을 설득하며 그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독려하는데, 그의 신학이 제2 성전 시대 팔레스티나 유대이즘과 동일하며 획일화된 종교적 모델이라는 샌더스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26) C. Tassin, “Paul dans le monde juif du Ier siècle”, *Paul de Tarse*, Lectio Divina 165, ed. J. Schlosser, (Paris: Cerf, 1996), 171-172. 제2 성전 시대 유대이즘은 70년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90년경 암니아 회의로 기점으로 ‘라뻬 유대이즘’으로 넘어간다.

27) 참조 사도 9,11; 21,39; 22,3.

28) 케네스 샌크, 『필론 입문』,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5, 송혜경 옮김, (서울: 바오로당, 2008), 173-174: “필론의 작품이 바오로의 사상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바오로는 필론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전통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시인들과 퀘변가들이 좋아하는 신화적 허구가 아니라, 잠재된 의미에 의한(δὲ ὑποκειμένων) 설명에 따라 우리의 표현을 이끄는 우의적 해석(ἐπ' ἄλληγορίαν)···(『세상의 창조』 157).<sup>29)</sup>

『세상의 창조』(*Opif.*)에 의하면 ‘우의’(ἄλληγορία)는 글자 그대로의 ‘자구(字句)적 의미’보다 ‘잠재된 의미’와 관련된다. 필론은 ‘우의’를 설명하며 ὁδῶς, ἀφαιής, σύμβολον, ὑπόνοια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다시 말해, 그의 ‘우의’에서 ‘숨겨진’, ‘모호한’, ‘상징적’, ‘잠재된’ 기의(記意)가 본질적일 뿐 피상적 기표(記標)나 자구작문자적 의미는 부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사악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활용하는 갈라 4,28-31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 철학자의 작품에서 이 구약 이야기가 우의적으로 재해석되는가?<sup>30)</sup>

하가르라는 이름을 지닌 예비 연구들이 쫓겨날 것이며,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퀘변가(ὁ σοφιστής)도 쫓겨날 것이다(『케루빔』 8)<sup>31)</sup>.

『케루빔』(*Cher.*)에서 이스마엘은 ‘퀘변가’(ὁ σοφιστής)로 명명된다. 구약 정경과 외경 어디에서도 하가르의 아들에게 ‘퀘변가’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필론의 이 같은 우의적 해석은 독창적이며 주목할만하다.

이스마엘이 약 이십 년을 살았을 때 모세는 덕이 충분히 자란 이사악(ἐν ἁρεταῖς τέλει καὶ τέλει Ἰσαάκ)과 비교하여 그[이스마엘]을 아이(παιδίον)라 불렀다···이미 어른이 된 그는 어린아이라고 불리었기에, [이는] 퀘변가와 현인의 대조를 나타낸다(σοφιστής ἀντιτεταγμένος σοφῶ). 지혜(σοφία)는 이사악의 상속 재산이며, 퀘변(σοφιστεία)은 이스마엘의 상속 재산이다···(『맑은 정신』 8.9)<sup>32)</sup>.

『맑은 정신』(*Sobr.*)에서 이사악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두 인물을 서로 대척점에 놓는

29) Philo of Alexandria, *Philo I*, trans. F.H. Colson - G.H. Whitak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124-125.

30) 필론의 작품들에서 이스마엘(Ἰσμαήλ)에 관한 ‘우의’가 발견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맑은 정신』 8.9<sup>2)</sup>; 『도주와 발견』 1.204.208<sup>2)</sup>; 『이름의 변경』 201.202.204.209.216.218.252; 『케루빔』 8.

31) Philo of Alexandria, *Philo II*, trans. F.H. Colson - G.H. Whitak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12-13.

32) Philo of Alexandria, *Philo III*, trans. F.H. Colson - G.H. Whitak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446-449.

방식의 우의적 해석이다. 첫째, 생물학적·역사적 나이와 상관없이 이사악은 ‘어른’에, 이스마엘은 ‘어린이’에 비견(比肩)된다. 둘째, 이사악은 ‘턱이 충분히 자란 현인’으로 묘사되지만 이스마엘은 ‘퀘변가’에 빗대어 기술된다. 셋째, ‘지혜’(σοφία)가 이사악의 상속 재산이라면 ‘퀘변’(σοφιστεία)은 이스마엘의 상속 재산이다. 이 두 인물을 비교·대조하는 필론의 우의적 해석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구약 정경에 근거하면 모세와 이사악·이스마엘은 역사적으로 동시대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것처럼 모세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 상징적 의미와 잠재된 의미를 직접 부여한 것으로 재해석한다. 이로부터 필론의 ‘우의’는 시대착오적(anachronique) 해석을 넘어 근본적으로 역사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면 갈라 4,28-31은 필론으로 대변(代辯)되는 디아스포라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의 특징과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가? 갈라 4,30에서 차용(借用)된 창세 21,10<sup>33)</sup>은 ‘상속’과 ‘추방’이라는 신학 주제를 전면에 배치하는데, 이는 필론의 작품(참조 『케루빔』 8; 『맑은 정신』 9)과의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갈라 4,28의 ἡμεῖς ὅς, ἀδελφοί, ὥστε와 31절의 διὸ, ἀδελφοί, ὥρμην은 수신자들의 상황이 이사악과 이스마엘 이야기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 그들의 신원·정체성(28절: ἐπαγγελίας τέκνα)이 이사악과 해석학적으로 연결된다(28절: κατὰ Ἰσαὰκ)는 점을 강조한다. 필론의 비(非)역사적인 ‘우의’와 달리 29절의 ὥστερ τότε와 οὕτως καὶ νῦν을 근거로, 4,28-31은 갈라티아 공동체가 직면한 특수한 배경과 상황<sup>34)</sup> 속에서 집필되었고 구약성경 속 이사악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발신자에 의해 현재화되었으며 실제로 연구 본문은 역사성을 충만히 담지(擔持)하고 있다.<sup>35)</sup>

그 결과, 필론 계열의 ‘우의’와 연구 본문은 직접적 종속 관계를 고려하기에는 배제할 수 없는 내재적 불연속성이 발견되므로 4,28-31을 엄격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3) 여기서 ‘인용’ 대신 ‘차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갈라 4,30과 창세 21,10(LXX) 본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본문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진하게 표기했다.

갈라 4,30: ἔβαλε τὴν παιδίαν καὶ τὸν υἱὸν αὐτῆς· οὐ γὰρ μὴ κληρονομήσει ὁ υἱὸς τῆς παιδίσκης μετὰ τοῦ υἱοῦ τῆς ἐλευθέρας.

창세 21,10(LXX): ἔβαλε τὴν παιδίαν αὐτὴν καὶ τὸν υἱὸν αὐτῆς οὐ γὰρ κληρονομήσει ὁ υἱὸς τῆς παιδίσκης αὐτῆς μετὰ τοῦ υἱοῦ μου Ἰσαὰκ

34) 갈라티아서의 집필 동기와 관련하여: 갈라 1,6; 2,4-5; 3,1; 6,13 참조.

35) 참조. Keener, *Galatians*, 224.

## 2.2. 팔레스티나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

연구 본문을 팔레스티나 유다계 ‘우의’의 범주에 넣는 것은 합리적인가? 이를 위해 사해 문서의 증언을 먼저 살펴보자.

레바논은 공동체 회의이고, 짐승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다의 순수한 이들이며…(『하바룩 주석서』 12,3-5).<sup>36)</sup>

그 해석은 거짓을 퍼뜨리는 자와 관련된다…그 해석은 정의의 스승과 관련된다. 그것은 자신의 회의, 즉 하느님의 선택된 이들 안에 기꺼이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다…(『미카 주석서』 4.6-8).<sup>37)</sup>

쿰란 문헌 중 *peshet*(<sup>פֶּשֶׁת</sup>)에 해당하는 『하바룩 주석서』(4*QpHab*)와 『미카 주석서』(1*QpMic*)는 구약의 다양한 표상(表象)을 해당 공동체와 우의적으로 연결한다. ‘공동체 회의’, ‘율법을 지키는 유다의 순수한 이들’, ‘거짓을 퍼뜨리는 자’, ‘정의의 스승’, ‘모든 이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표현은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서만 그 의미가 정확히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물, 제후들이 그것을 뿔고 백성의 귀족들이 그것을 지휘봉으로 뿔었다. 우물, 그것은 율법이고, 우물을 판 사람들, 그들은 유다의 땅을 떠나 다마스쿠스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돌아온 이들이다…그리고 지휘봉, 그것은 율법의 해석자이다(『다마스쿠스 문서』 6,3-5.7).<sup>38)</sup>

『다마스쿠스 문서』(CD)에 근거하면 율법에 관한 정통한 해석은 쿰란 공동체에만 유보되었다.<sup>39)</sup> 그런 의미에서 팔레스티나 유다계 ‘우의’에 관한 이 증언은 구약 예언이 본

36) 참조 F. García Martínez - E.J.C. Tigchelaar, ed.,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1, (Leiden - Boston - Köln: Brill, 1997), 20-21.

37) 참조 Ibid., 8-9.

38) “Écrit de Damas”, trans. A. Dupont-Sommer, in A. Dupont-Sommer - M. Philonenko, ed.,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Gallimard, 1987), 154; 제인용. 송창현, 「“다마스쿠스 문서”3: CD IV 12-VIII 21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133(2020, 11-12월), 11.

39) 쿼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라베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개론, 선택 본문과 해석』,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수민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72), 28: “쿰란은 성경 본문을 자기 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와 연관시킨다…주해는 성경 본문이 비밀을 담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비밀을 예언자들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셨다. 하느님은 오히려 나중에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와 같은 선택된 주해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일종의 ‘예형론’으로 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상술(上述)된 문헌들 속 ‘우의’는 필론의 ‘우의’처럼 비역사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구약 이야기(과거)가 ‘지금 여기’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의미를 향유하며(현재)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미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사해 문헌의 ‘우의’가 ‘예형론’과 맞닿아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타르굼 전통과 후대 미드라쉬 전통이 증언하는 ‘우의’는 어떠한가?

바르비에로(G. Barbiero)에 의하면 유다교 회당 전례에서 유래하는 타르굼<sup>40)</sup>은 “현저한 역사적인 차원을 지닌다.”<sup>41)</sup> 이에 대한 근거로 학자들은 『타르굼 아가서』(*Tg Ct*)를 내세우는데, 그중에 만(F. Manns)<sup>42)</sup>이 대표적이다. 한편 갈라티아서<sup>43)</sup> 연구 본문과 타르굼을 비교하기 위해 집필 연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Tg Ct*는 기원후 7세기에서 8세기경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연성의 측면에서 후대에 쓰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sup>44)</sup>는 알렉산더(P.S. Alexander)의 의견은 객관적이다. 다만 *Tg Ct*가 최종 편집 과정을 거쳐 선집 형태를 갖춘 것이 상대적으로 후대라는 것일 뿐, 회당에서 아가서를 봉독하고 아람말로 통역하며 해석을 덧붙였던 전례 전통을 바빌론 유배 시기쯤으로 고려하는 것(참조: 느헤 8,3-8)까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곧, 유다교 회당 전통 자체는 바오로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Tg Ct*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부터 귀납되는 명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타르굼은 아가서 전체를 이스라엘 역사에 따라 읽기 때문에 타르굼 전통에 따른 ‘우의’는 근본적으로 역사성을 지닌다. 이는 *Tg Ct*를 ‘예형론’

40) 타르굼 전통의 유래와 분류, 특징에 관하여: F. Manns, “Le Targum du Cantique des Cantiques. Introduction et traduction du codex Vatican Urbinati 1”, *Liber Annuus*, 41(1991), 223-226; C. Tassin, “Vous avez dit ‘Targoum’?”, *Transversalités*, 106(2008, 2), 133-163.

41)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4), 836.

42) Manns, “Le Targum du Cantique des Cantiques”, 226-227: “아가서 타르굼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우의로 해석한다. 신랑은 하느님, 신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당한다.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다가올 해방에 대한 암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한 역사는 이 안에 요약되어 있다...이스라엘 서사시의 요약 그 이상인 타르굼은 미래의 사건까지 품어내는 하나의 예언처럼 소개된다. 타르굼은 역사이며 예언이다.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의 강렬한 사랑의 역사이며, 이 사랑의 대화가 꽃피우게 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다.”

43) 갈라티아서가 약 55-56년경 집필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많은 학자가 의견을 모은다. 참조: D.J. Moo, *Galat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4; J.-P. Lémonon, *L'épître aux Galates*, Commentaire biblique: Nouveau Testament 9, (Paris: Cerf, 2008), 34; Légasse, *Galates*, 35-36.

44) P.S. Alexander, *The Targum of Canticles*, The Aramaic Bible the Targums 17A,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55.

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타르굼의 ‘우의’가 바오로의 해석학에 직접 영향을 끼쳤거나 갈라티아서와의 종속 관계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유대교 전통의 큰 흐름에서 갈라 4,28-31과 *Tg Ct*이 해석학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다.

팔레스티나 유대계 ‘우의’ 전통을 논하기 위해 『아가서 라바』(*Ct Rabba*)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봉시르방에 따르면 “라빠들은 아가서를 우의적 해석으로 집필된 글로 이해하거나, 아가서 자체를 일종의 우의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sup>45)</sup> 때문이다. 스템베르거(G. Stemberger) 또한 “라빠들의 아가 주해는 사랑하는 이에게서 하느님을 보고 신부에게서 이스라엘을 본다. 아가 전체는 하느님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구원을 우의적으로 표현한다.”<sup>46)</sup>며 *Ct Rabba*에 부여된 ‘우의’ 전통의 의의(意義)를 밝힌다. 바르비에로 역시 “랍비의 주석들의 특징은 아가를 ‘집단적’으로, 곧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삶과 연관시킨다는 것”<sup>47)</sup>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학자들의 분석은 *Ct Rabba* 안에 역사성, 공동체성, 삶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갈라 4,28-31은 팔레스티나 유대교 전통에 따른 ‘우의’의 기준 및 특징에 부합하는가? 한슨은 “우의적 해석의 실행이 지금까지 이해된 것보다, 또는 후대 라빠 문헌이 기꺼이 수용하려 했던 것보다 오히려 바오로 시대 팔레스티나 전통에서 교육을 받은 라빠들 사이에서 훨씬 널리 퍼져 있었다.”<sup>48)</sup>고 주장한다. 그러나 봉시르방은 정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타나임 시대 라빠들에게서 우의적 해석은…방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다른 해석 방식들과 견줄 때 상대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열세였다.”<sup>49)</sup> 만일 바오로가 힐렐-가말리엘에게서 계승한 바리사이들의 해석 전통, 외연(外延)을 확장하여 타나임 시대<sup>50)</sup> 라빠들의 해석 전통에 익숙했다 하더라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갈라티아서에서 굳이 팔레스티나 유대교 전통의 ‘우의’를 여과 없이 기계적·맹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한스

45) Bonsirven, *Exégèse rabbinique et exégèse paulinienne*, 214.

46)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89.

47)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831.

48) Hanson, *Allegory and Event*, 82.

49) Bonsirven, *Exégèse rabbinique et exégèse paulinienne*, 246-247.

50) A. Elkaim-Sartre, ed., *Aggadoth du Talmud de Babylone, La source du Jacob: 'El Yaakov*, (Paris: Verdier, 1982), 20: “힐렐과 샴마이의 제자들과 함께 타나임 시대가 시작된다. 이 시대는 약 210년(기원후 10-210년까지) 동안 지속되었다.”

의 주장은 바오로의 해석학적 자율성을 축소한다. 이처럼 한슨의 의견은 1세대 라빠들의 해석 전통에 관한 불확실성과 함께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는데,<sup>51)</sup> 검증되지 않은 전제와 해석의 오류라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오로의 해석학적 접근법을 탐구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 고대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를 갈라 4,28-31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해석학적 거리 두기를 요청한다. 마타(Y. Matta)의 제안에 근거하여 “비교 접근법은 문헌의 연대에 따라 종속 관계를 정의하거나 시간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의 다양성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의 목표는 공통된 줄기의 경험의 이쪽저쪽으로 가지를 뺄도록 방해하지 않는 살아있는 전통들의 거대한 저장소에 대한 지식과 교류를 열어놓는 것”<sup>52)</sup>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 본문과 유다계 ‘우의’와의 직접적 연관성이나 종속 관계를 찾으려는 ‘순진하고 단순한’ 시도를 최대한 지양(止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바오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축소·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토라와 율법을 배움으로써 당시 유다교 전통에 정통한 바리사이였고<sup>53)</sup>, 그리스어와 헬레니즘 수사학 및 서한 전통에도 능통했으며<sup>54)</sup>, 로마 제국 시민권자로 로마-라틴 문화와 법률 지식에 조예가 깊었다.<sup>55)</sup> 그는 유다이즘 헬레니즘 로마 문화로부터 상속받은 삼중의 유산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풍요로운 유산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해석학적으로 활용되었다.<sup>56)</sup>

이처럼 4,28-31에 대한 바오로의 접근법을 다룰 때 그의 해석학적 유연·상창의성을 전

51) Ibid., 24: “원로 힐렐은 처음으로 일정한 수의 해석 규칙을 제시했는데 일곱 가지가 있다. 이 규칙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도 힐렐 이전부터 알려졌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성서 해석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Rastoin, *Tarse et Jérusalem*, 164: “바오로는 난해한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하지 않으며 기교를 부리는 듯한 성경 주석 규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52) Matta, *À cause du Christ*, 359.

53) 참조 사도 22,3; 갈라 1,14; 필리 3,5-6.

54) 신약 정경 27권 가운데 바오로계 문헌만 13편, 제1 바오로 서간만 7편이다. 바오로가 헬레니즘 서한 전통에 익숙했다는 사실은 그가 집필한 편지의 양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원거리 의사소통 방식인 편지를 통해 수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던 수사학적 기법들은 그가 향유했던 그리스어와 수사학에 대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55) 참조 사도 16,37-38; 22,25-29.

56) 참조 Rastoin, *Tarse et Jérusalem*, 92; R. Riesner, “L’héritage juif de Paul et les débuts de sa mission”, *Paul, une théologie en construction*, eds. A. Dettwiler - J.-D. Kaestli - D. Marguerat, (Genève: Labor et Fides, 2004), 135-155.

제하는 것은 적어도 균형감 있는 관점을 보증한다. 역사성과 공동체성과 실천적 삶의 차원 곧 예형론적 특징을 공유했던 팔레스타나 ‘우의’ 전통이 그의 해석학에 간접적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 본문을 유다교 전통에 따른 ‘우의’로 단정 짓는 것은 그의 해석학적 고유성과 구약 외경들과의 불연속성<sup>57)</sup>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크다. 이로부터 4,28-31을 유다교 전통의 ‘우의’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3. 갈라 4,28-31과 ‘예형론’에 관한 논증

4,28-31은 ‘예형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1 바오로 서간에서 사용된 ‘예형론’의 일반적 특징들을 선별(選別)해보자.

#### 3.1. 제1 바오로 서간 속 ‘예형론’의 특징

‘예형론’으로 파악되는 대표적인 본문은 로마 5,12-15이다. 해당 본문에서 아담과 모세 같은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 탄생 이전까지 죄를 지은 이들 사이의 유사성·연대성(5,14: ὁμοιότητα)이 그려지는데, 이는 12절의 ὡςπερ와 οὕτως를 통해 강조된다. 이 유사성·연대성은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도 적용된다.<sup>58)</sup> 그분 은총 덕분에 죄로부터의 구원·해방·속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15절 참조)되었기 때문이다. 15절 내용은 14절의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τύπος τοῦ μέλλοντος)입니다”를 통해 의미가 명확해진다. 1코린 15,22,45<sup>59)</sup>에서도 로마 5,12-15과 유사한 ‘아담-그리스도 예형론’이 발견되기 때문에,<sup>60)</sup> 제1 바오로 서

57) 참조 J.-N. Aletti, “Migration et identité du III<sup>e</sup> avant J.-C. au I<sup>er</sup> siècle Grecs, Judéens, Romains, Chrétiens et leurs modèles”, *Exodes et migrations dans les traditions bibliques*, eds. O. Artus - S. Ramond, (Paris: Cerf, 2020), 216-217; S. Buttica, “‘Ceux du Christ’: l’identité collective des Galates entre exclusivisme christologique et inclusivisme éthique”, *Paul et son Seigneur: Trajectoires christologiques des épîtres pauliniennes*, ed. C. Rimbault, (Paris: Cerf, 2018), 169-204.

58) 참조 S. Légasse, *L’épître de Paul aux Romains*, *Lectio Divina Commentaires* 10, (Paris: Cerf, 2002), 360-361.

59) 1코린 15,22,4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ὡςπερ...οὕτως)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간에 따르면 구원 역사 속 아담은 그리스도와 비견된다. 로마 5,14의 τύπος<sup>61)</sup>가 “예형”(figure)으로 번역되었다면, 예형은 본형(本形)을 ‘미리 알리는 예고’(préfiguration)의 기능을 한다.<sup>62)</sup> 이처럼 τύπος로 특징지어지는 로마 5,12-15의 ‘아담-그리스도 예형론’으로부터 추론되는 특징은, 첫 번째로 구세사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 ‘역할의 유사성’이며 두 번째로 전자에 의해 후자가 ‘예고’(annonce)되었고 후자는 전자를 ‘성취’(accomplissement) 한다는 것이다.

제1 바오로 서간 속 예형론적 특징을 드러내는 다른 본문은 1코린 10,1-6.11이다. 10,6에서 τύπος는 “본보기”로 옮겨지는데, “τύπος는 (모방하거나 모방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아니다. 오히려 ἡμῶν는 탈출기 사건, 곧 교회가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하는 고유한 ‘탈출해방’에 대한 예고나 ‘본보기’...”<sup>63)</sup>라고 설명하는 센프트(C. Senft)의 주석은 적절하다. ‘상황의 유사성’을 토대로 코린토인들의 현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과거 사건들과의 해석학적 연관성 안에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구약의 탈출기 사건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10,6: τύπος; 10,11: τυπικώς) 곧 반면교사(反面教師)가 된다는 것은 예형론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전제한다(10,11 참조).<sup>64)</sup> 다시 말해, 발신자가 10,1-6.11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수신자들에게 주지(周知)시키기 위해서이다. 4절의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에서 구약 사건의 ‘영적 바위’<sup>65)</sup>는 신약 사건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6절의 καὶ οὕτως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 사이 ‘상황의 유사성’을 표현한다. 1코린 10장에서 구약의

60) 참조. C. Perrot, “L’épître aux Romains”, *Cahiers Évangile*, 65(1988), 34-35.

61) ‘예형론’의 핵심 어휘 τύπος는 ‘형태’, ‘유형’, ‘표상’, ‘본보기’ 등을 의미한다. 참조. Liddell -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1835; Bailly, *Dictionnaire grec-français*, 1975;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829-830.

62) 참조. Légasse, *Romains*, 365-366.

63) C. Senft, *La première Épître de Saint-Paul aux Corinthiens*,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7, (Neuchâtel - Paris, Delachaux & Niestlé, 1979), 129-130. 참조. P. Grelot, “La naissance d’Isaac et celle de Jésus sur une interprétation ‘mythologique’ de la conception virginale”, *Nouvelle Revue théologique*, 94/5-6(1972), 476-477.

64) 참조. M. Quesnel,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Commentaire biblique: Nouveau Testament 7, (Paris: Cerf, 2018), 235-237.

65) 1코린 10,4의 “영적 바위”란 탈출 16,4-35의 ‘영적 양식’인 만나와 탈출 17,5-6; 민수 20,7-11의 ‘영적 음료’인 바위에서 터져 나온 물을 표상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석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1판, 1쇄), 634, 각주 4 참조.

사건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분 아드님의 도래를 미리 ‘예고’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영적 바위는 신약의 그리스도로 재해석되며 탈출기 사건의 ‘성취’를 상징한다.

비록 τύπος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2코린 3,13-18도 예형론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두 집단 사이 ‘역할의 유사성’이 차이점과 함께 일종의 기준처럼 제시되기 때문이다. 모세로 대변되는 집단(13절: *καθὼς Μωϋσῆς*), 곧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7절)을 수행하는 이들의 역할과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집단, 즉 “새 계약의 일꾼”(6절)인 바오로 일행의 역할이 첨예하게 대립 된다.<sup>66)</sup> 바오로는 구원 역사에서 이 두 집단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옛 계약’의 모세에게 ‘새 계약’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역할을, 후자에게 전자의 불완전함을 ‘성취’하는 역할을 각각 부여한다.

논증 결과를 종합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 ‘상황과 역할의 유사성’, ‘예고와 성취의 관계’는 제1 바오로 서간 속 예형론에서 본질적·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 3.2. ‘이사악-그리스도의 암묵적 예형론’으로서 갈라 4,28-31

제1 바오로 서간에서 ὡς(로마 5,12; 1코린 15,22), οὕτως(1코린 15,22), καθώς(1코린 10,6), καθὼς(2코린 3,13)는 예형론을 나타내는데, 갈라 4,29의 ὡς οὕτως과 τότε καὶ ὑμεῖς도 연구 본문을 예형론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한가?

첫째, ‘상황의 유사성’과 ‘예고와 성취의 관계’를 연구 본문에 적용해보자. 레가스는 “고유한 의미의 예형론 구성이 로마 5,12.19; 1코린 15,22에만 있다.”<sup>67)</sup>고 말하면서도 갈라 4,29에서 발견되는 것은 “오늘날 그들[갈라티아인들]의 상황과 먼 과거 이사악의 상황 사이의 유사성이다. 여기서 예형론이 완전히 작동한다.”<sup>68)</sup>며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 보나르의 경우 “바오로는 과거 사건(ὡς τότε)에서 현재 사건의 예언적 예형-예고(οὕτως καὶ ὑμεῖς)를 본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옛 역사가 교회 역사를 밝히는 것”<sup>69)</sup>이라고 풀이한다. 헤이스(R.B. Hays)에 의하면 29절에서 “바오로는 이사악을 교회에 대한 예형-예고로 읽는다.”<sup>70)</sup> 이처럼 이사악과 갈라티아인들(곧, 그들 공동체) 사이 ‘상황의 유사성’이 연구 본문

66) 참조 M. Quesnel, “Les épîtres aux Corinthiens”, *Cahiers Évangile*, 22(1977), 29-30; M. Carrez,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Cahiers Évangile*, 51(1985), 24-25.

67) Légasse, *Galates*, 361, n. 1.

68) Ibid., 361-362.

69) Bonnard, *Galates*, 99.

에 의해 전제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편지 수신자들 사이 ‘예고와 성취의 관계’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4,28-31에서 이사야이 필연적으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예고’한다거나 후자의 현재 상황이 반드시 전자에 대한 ‘성취’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표면적 본문 속 근거가 불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제르베르는 29절에서 이사야와 갈라티아인들 사이 ‘예고와 성취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그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제르베르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탄생을 다루는 성경 이야기가 만일 예형론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았다면…바오로에게 어떻게 이 같은 해석이 가능했겠는가?”<sup>71)</sup>라고 질문한 뒤, “갈라티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사야의 탄생을 예형으로 삼는 하느님 약속의 성취임을 확인하면서, 사도는…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의 탄생으로 예고된 신적 행위와의 연속성 위에 교회를 정초시킨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위더링턴 역시 28절에서 “바오로는 그의 청중이 이미 이 약속의 수혜자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72)</sup>고 전제하며 주석을 이어간다. 그에 따르면 29절은 “이사야와 갈라티아인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예형론이라고 논증될 수 있지만, [본문 안에] 그 자체로 예형론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예형론이 있든 없든 분명히 비교가 발견”<sup>73)</sup>되며 “바오로는 이사야와 [수신자들의] 현재 사이 상황의 유사성을 그린다.”<sup>74)</sup>라는 분석이 덧붙여진다. 결정적으로 위더링턴은 5,1에서 “그리스도론적 함의 (Christological implication)에 주목해야 한다.”<sup>75)</sup>며 4,28-31까지 ‘그리스도론적 해석’으로 읽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逆說)한다. 4,28-31에서 ‘그리스도’라는 어휘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연구 본문을 관통하는 바오로의 해석학 곧 ‘그리스도론적 해석’이 강조된 것이다. 그 결과, 예형론의 특징인 ‘예고와 성취의 관계’는 이사야와 갈라티아인들의 관계에 직접 적용되었다기보다 이사야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암묵적이며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사야-그리스도-갈라티아인들’의 관계가 바오로의 해석학적 고찰 안에서 전제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sup>76)</sup>

70) R.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86-87.

71) 참조 Gerber, “Ga 4,21-31 ou l’indéfinissable méthode?”, 175.

72)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337.

73) Ibid., 337.

74) Ibid., 338.

75) Ibid., 340.

둘째, ‘그리스도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4,28-31을 읽어보자. 갈라티아의 신앙 공동체를 세운 이방인의 사도가 율법 아래 놓이기를 원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4,21)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약속의 자녀’, 이사악(4,23.28)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다. ‘율법’이 공포되기 전(3,17) 하느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3,6-7)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구원 역사에서 ‘약속’은 ‘율법’보다 탁월하며 우위에 있다(3,17). 바오로의 논증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던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이사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sup>77)</sup>이기 때문이다. ‘약속-믿음’<sup>78)</sup>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sup>79)</sup>은 줄곧 갈라 3-4장의 성경에 근거한 논증을 이끈다. 수신자들이 ‘율법’에 집착함으로써 구원 역사에서 ‘율법’보다 본질적이며 우선순위에 놓인 ‘약속’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의 자녀’로 이사악을 규정한 것은 수사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으며 신학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바오로의 신학 사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조건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εἰ δὲ ὑμεῖς Χριστοῦ),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τοῦ Ἀβραάμ σπέρμα)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κατ’ ἐπαγγελίαν κληρονόμοι)입니다.”(3,29)에서 발견된다. 또한, 갈라티아인들은 “이사악과 같이”(4,28: κατὰ Ἰσαάκ) “약속의 자녀”(4,28: ἐπαγγελίας τέκνα),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4,31: τέκνα...τῆς ἐλευθέρου)와 동일시되는데, ‘약속의 자녀’라는 신원-정체성은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4,29: ὁ κατὰ σάρκα γεννηθείς)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4,29: τὸν κατὰ πνεῦμα),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3,26.29)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그리스도에게 속함’이다.

3,8-16에 의하면 성경은 하느님께서 ‘믿음’에 의지하는 민족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8절: προῖδοῦσα)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해 주었다(8절: προεπηγγέλιατο). 성경은 “너의 후손에게”(16절: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16절: ὃς ἐστὶν Χριστός)를 가리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갈라티아서의 집

76) 반면 레가스(Légasse, *Galates*, 366, n. 2)는 갈라 4,28-31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암시가 없으므로 이 예행론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집단적 특징만 강조한다.

77) Légasse, *Galates*, 361.

78) 참조. 갈라 3,7-9.11-12.14.16.18.19.22-25.

79) 참조. 갈라 3,10.11-12.17.21.23-24.



필 배경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사와 관련하여 로마 9,7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사를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해석을 선보인다. 이 구절의 ἐν Ἰσαὰκ κληθήσεται σοι σπέρμα 안에는 하느님께서 이사를 통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 예형인 이사가 ‘예고’한 본형 예수를 하느님께서 구원 계획안에 미리 섭리해 놓으셨다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갈라 3,8-16은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염두에 두며 성경이 ‘믿음’을 통한 민족들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고 미리 전해주었다고 논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와의 본형이며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두 본문을 풀어낼 수 있다. 이처럼 갈라 3,16의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와 로마 9,7의 σοι σπέρμα에서 바오로가 암묵적으로 전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사와 그리스도를 예형론적으로 연결하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다.

셋째, 제1 바오로 서간 속 예형론의 특징을 연구 본문에 적용해보자. 특별히 앞서 부연된 두 논거는 마지막 논거로 수렴(收斂)될 것이다. 바오로의 해석학에 의하면 ‘약속의 자녀’(4,23,28)인 이사와 이야기는 ‘약속’에 따라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3,16)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느님께서 완성하신 구세사의 지평에서 이사는 암묵적으로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역할, 곧 그를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로마 5,12-15; 1코린 10,1-6; 2코린 3,13-18; 갈라 4,28-31에서 드러나는 예형론적 특징인 ‘예고와 성취의 관계’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공통분모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본형을 ‘예고’하는 예형	예형을 ‘성취’하는 본형
로마 5,12-15	아담	장차 오실 분, 그리스도
1코린 10,1-6	영적 바위	그리스도
2코린 3,13-18	모세	그리스도, 주님
갈라 4,28-31	약속의 자녀, 이사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3,16)]

연구 본문에서 갈라티아인들이 ‘약속의 자녀’(4,28),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4,31)로 규정되었다면, 이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3,16)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2,16; 3,22)<sup>80)</sup>과 ‘그리스도에게 속함’(3,29)을 통해 거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이다. ‘그리스도론적 해석’에 중점을 두었던 바오로의 해석학에 근거하여, 하느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역사의 차원에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고’하며 그리스도는 이삭을 ‘성취’한다는 ‘이삭-그리스도의 암묵적 예형론’(typologie implicite entre Isaac et Christ)으로 갈라 4,28-31을 읽는 것<sup>81)</sup>이 신중하며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3.3. 갈라 4,22-27과 4,28-31의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

4,22-27과 4,28-31은 어떤 관계인가?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갈라티아서의 두 본문 사이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제1 바오로 서간과 다른 성경 본문 및 외경 문헌들에 근거하여 논증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첫째, 공식적 관점에서 갈라 5,9-10과 1코린 5,6-7의 논증 방식을 비교·검토해보자. 갈라티아서의 교와·이론 부분(3,1-4,31)은 권고·교훈 부분(5,1-6,10)과 연결된 구조로 편지의 몸말을 구성한다. 따라서 전자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법을 분석하는데 후자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룩의 비유’를 다루는 갈라 5,9-10과 본고의 연구 본문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누룩의 비유’는 1코린 5,6-7에서도 활용된다. 그러므로 갈라 5,9-10과 1코린 5,6-7을 비교한 후<sup>82)</sup> 그 결과를 갈라 4장에 적용하는 것은 바오로의 수사학적 논증 방식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반 원칙	구체적 적용
갈라 5,9-10	9절: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10절: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εις ὑμῶς)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πέποιθα). 그러나 여러분을(ὑμῶς)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코린 5,6-7	6절: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οὐκ οἴδατε ὅτι)?	7절: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80) 갈라티아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표현: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2,16);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3,22).

81) 르모(M. Remaud)의 분석에 근거하면 고대 유대교 전통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이삭과 연결한다. 이 해석은 초대 교회의 경우 그리스도를 암시할 수 있겠지만, 갈라 4,28-31에서는 이 해석 전통이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참조. M. Remaud, “Isaac et la foi en la résurrection des morts”, *Nouvelle Revue théologique*, 132/4 (2010), 529-542.

82) 참조. Longenecker, *Galatians*, 231.

갈라 5,10은 2회 사용된 복수 2인칭 대명사 ὑμᾶς와 동사 πέποιθα를 전치사 εἰς와 위으며 구문을 형성한다. “갈라티아인들의 상황이 [그]바오로가 원했던 방향과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충실함이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sup>83)</sup>에도 편지 집필 당시 수신자들은 발신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공동체의 상황이 비록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바오로는 갈라티아인들이 ‘복음의 진리’<sup>84)</sup>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들을 위해(εἰς ὑμᾶς) 주님 안에서(ἐν κυρίῳ) 여전히 신뢰와 확신(πέποιθα)을 간직하고 있던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 같은 구체적·현실적 상황에서 5,9이 ‘누룩의 비유’에 관한 상징성을 ‘일반 원칙’처럼 제시한 것이라면, 5,10은 공동체의 상황에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sup>85)</sup> 한편 갈라티아서와는 전혀 다른 발화 상황에서 집필된 1코린 5,6에서도 ‘누룩의 비유’에 관한 상징성이 수사학적 질문의 형식(οὐκ οἴδατε ὅτι)으로 도입된다. 한편 5,7에서 2인칭 복수형으로 활용된 동사들 ἐκκαθαράτε ἥτέ ἐστε는 코린토인들을 지칭하는데 καὶ ὥς를 근거로 그들은 “누룩 없는(ἄζυμοι)…새 반죽(νέον φύρμα)”에 빗대어 표현되기 때문이다.<sup>86)</sup> 따라서 갈라 5,9; 1코린 5,6에서 사용된 ‘누룩의 비유’를 ‘일반 원칙’이라고 가정하면, 갈라 5,10; 1코린 5,7의 언급들은 각각의 수신자 공동체의 현재 상황에 이 ‘일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된다. 이처럼 제1 바오로 서간의 두 본문은 ‘일반 원칙과 구체적 적용’이라는 공통된 논증 방식으로 구성된다.

연구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소들이 발견된다. 갈라 4,28의 “여러분”(ὑμεῖς), 29절의 “지급”(ἰὺν), 31절의 “우리는…입니다”(ἐσμέν) 같은 표현은 4,22-27의 ‘우의’를 ‘일반 원칙’으로, 4,28-31을 공동체 상황에서의 ‘구체적 적용’으로 분석하게 하는 본문 속 근거가 된다. 하지만 4,22-27과 4,28-31의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는 다른 논거를 통해 보강될

83) 참조 Ibid., 231-232; Légasse, *Galates*, 392.

84) 갈라티아서에서 “복음의 진리”로 번역된 표현: ἡ ἀλήθεια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2,5); τὴν ἀλήθειαν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2,14).

85) 참조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372; Légasse, *Galates*, 392. 위더링턴과 레가스와는 달리 드 보어(De Boer, *Galatians*, 321)는 5,10에서 갈라티아인들과 관련된 ‘상황의 유사성’이 표면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 ‘누룩의 비유’라는 상징성이 수신자 공동체의 특별한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만큼은 최소한 인정한다.

86) 참조 Quesnel,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26; J.A.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32,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41: “바오로는 코린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실제로 ‘누룩 없는 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비유들을 구성한다…”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시적 관점을 견지하며 바오로가 이사악과 이스마엘 이야기로부터 활용했을 신학-해석학적 주제를 끌어 내보자. 먼저 4,30에서 ‘상속하다’라는 뜻의 κληρονομέω가 사용된다.<sup>87)</sup> 5,21에서도 κληρονομέω는 갈라티아인들의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악과 이스마엘에게 부여된 상징적 의미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4,29-30에서처럼 5,18-21<sup>88)</sup>에서도 ‘상속’ 문제가 ‘성령’과 연결되는데, ‘성령’과 ‘육’의 대조는 본 편지를 관통하는 신학 쟁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sup>89)</sup> 3,3; 4,29; 5,16.17; 6,8에서도 ‘성령’은 ‘육’과 대척점에 놓인다는 점에서, ‘약속-믿음’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듯이 ‘성령’은 ‘육’보다 우위에 있다.<sup>90)</sup> ‘성령’에 의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갈라티아인들은 이제 ‘육’으로(3,3), 즉 율법의 종살이(5,1)로 여정을 마치려 한다는 것이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백척간두(百尺竿頭) 같은 현재 상황은 그들이 복음(1,6)과 성령(3,2)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3,5)을 받아들이기 이전으로 뒷걸음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바오로는 갈라티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상속’이라는 첫 번째 신학 주제를 해석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4,29에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22.23절) - 육에 따라(κατὰ σάρκα) 태어난 이를 상징 - 은 자유의 몸인 부인의 아들 이사악(22.23절) - 성령에 따라(κατὰ πνεῦμα) 태어난 이를 상징 - 을 “박해했다”(ἐδίωκεν)는 재해석이 발견된다. “그때처럼”(ὥσπερ τότε) “지금도”(οὕτως καὶ νῦν) 이 ‘박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해석이 연구 본문에서 활용된 두 번째 신학 주제이다. 그러면 이 주제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그를로(P. Grelot)<sup>91)</sup>에 의하면 갈라 4,29은 창세 21,9<sup>92)</sup>을 암시한다. 그러나 보나르는 그를로와 다른 의견을

87) 갈라티아서에서 ‘상속’이라는 신학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κληρονομέω(4,29; 5,21); κληρονόμος(3,29; 4,1.7); κληρονομία(3,18); υἱός(1,16; 2,20; 3,7.26; 4,4.6<sup>\*2</sup>.7<sup>\*2</sup>.22.30<sup>\*3</sup>); σπέρμα(3,16<sup>\*3</sup>.19.29); τέκνον(4,19.25.27.28.31); υἱοθεσία(4,5).

한편 제1 바오로 서간에서 ‘상속’과 관련된 어휘들이 사용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κληρονόμος: 로마 4,13.14; 8,17<sup>\*2</sup>.

κληρονομέω: 1코린 6,9.10; 15,50<sup>\*2</sup>.

88) 갈라 5,18-21: “여러분이 성령(πνεύματ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ὑπὸ νόμου)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τὰ ἔργα τῆς σαρκός)은 자명합니다...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οὐ κληρονομήσουσι).”

89) 참조. Lémonon, *Galates*, 165.

90) 참조. Moo, *Galatians*, 309; Légasse, *Galates*, 363.

91) Grelot, “La naissance d’Isaac et celle de Jésus”, 472. 참조. Tg PsJ Gn 21,9.

내세운다. “창세 21,9의 히브리어 본문 *prys*도, 그리스어 본문 *παίζοντα*도 이사악에 대한 이스마엘의 박해(*δωκεν*)를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2세기 중반에 사망한) 라삐 이스마엘의 권위를 빌린 후대 라삐 문헌(T Sota 6,6)은 창세 21,9을 이사악에 대한 이스마엘의 적개심으로 풀이한다.”<sup>93)</sup> 한편 바오로의 해석학적 논증을 설명하기 위해 라삐 문헌과의 직접적 종속 관계를 전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에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sup>94)</sup> 성문화된 시기가 비교적 후대인 라삐 문헌들 안에 오래된 전통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지만, 갈라 4,29에서 바오로가 영감을 받았을 유다교의 신앙의 유산 안에는 라삐 문헌만 있던 것은 아니다.

히브리어 *prys*의 Piel형은 ‘놀다’, ‘놀리다’, ‘농담하다’, ‘웃다’를 뜻한다.<sup>95)</sup> 창세 21,9(LXX)에서 *prys*의 그리스어 번역인 *παίζω*는 ‘놀다’, ‘즐기다’, ‘춤추다’뿐 아니라 ‘놀리다’, ‘비웃다’를 의미한다.<sup>96)</sup> 게다가 갈라 4,29에서 사용된 *δωκεν*은 ‘박해하다’, ‘쫓아내다’, ‘추적하다’ 등을 가리킨다.<sup>97)</sup> 이 세 동사는 이사악과 이스마엘 사이 ‘분쟁, 빈정거림’의 상황과 관련된 해석을 가능케 하는가? 유다교의 다양한 *haggadah*(חגגה) 전통(예를 들어, 『타르굼 차명-요나탄』 창세 21,9; 『회년서』 17,4; 『유다 고대사』 1,215; 『창세기 라바』 53,11)은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바오로가 정경 창세 21,9이 서술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을 갈라 4,29에서 자율성-유연성-독창성과 함께 활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논리적 비약이나 억측으로만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로부터 이사악에 대한 이스마엘의 ‘박해’라는 두 번째 신학 주제가 연구 본문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92) 창세 21,9: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prys/παίζοντα*)을 보았다.

93) Bonnard, *Galates*, 99.

94) 이에 관해 바그너(G. Wagner, “Les enfants d’Abraham ou les chemins de la promesse et de la liberté. Exégèse de Galates 4,21 à 31”,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71/3(1991), 294.)는 “이사악과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고 추정되는 라삐들의 해석을 탐구하는 것은 분명히 바오로의 사고의 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분석한다.

95) 참조 F. Brown - C.A. Briggs - S.R. Driver,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Oxford: Clarendon Press, 1966<sup>6</sup>), 850; M. Jastrow, *A Dictionary of Targumim,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vol. II, (London - New York: Luzac & Co., G.P. Putnam’s Sons, 1903), col. 1274.

96) 참조 Liddell -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1288; Bailly, *Dictionnaire grec-français*, 1440;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604.

97) 참조 Liddell -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440; Bailly, *Dictionnaire grec-français*, 525;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01.

4,30에서 ‘추방하다’라는 뜻의 ἐκβάλλω가 사용된다. 이 구절에서 타르수스 사람은 구속력이 강한 구약성경의 권위에 호소하며 갈라티아의 이방인 독자들을 향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라는 창세 21,10의 명령을 인용한다. 정경 본문에서는 창세 21,10의 ‘추방’ 명령이 사라의 입에 올려지지만 갈라 4,30에서는 성경(τί λέγει ἡ γραφή) 자체가 이 명령의 주체이다. 바오로는 갈라티아인들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이사와과 이스마엘 이야기에 서 특별히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면서까지 ‘추방’이라는 신학 주제를 해석학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98)</sup> 이처럼 연구 본문 속 세 번째 신학 주제는 ‘추방’과 관련된다.

본 논문의 논증 결과를 종합해보자. 구약성경 속 이사와과 이스마엘 이야기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 즉 ‘상속’, ‘박해’, ‘추방’이라는 신학 주제가 4,28-31 안에서 바오로에 의해 해석학적으로 활용되었다. 반면 4,22-27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상적 요소, 곧 ‘두 계약’, ‘두 예루살렘’, ‘사나이 산’, ‘아라비아’ 등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우의적 해석 방식이 드러난다. 그 결과,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연결’은 22-27절과 28-31절의 논증적·신학적 상관관계를 밝혀준다. 24-27절의 사라와 하가르에 관한 ‘우의’가 추상적 요소를 다루는 ‘일반 원칙’이라면, 28-31절의 이사와과 이스마엘에 관한 ‘예형론’은 ‘일반 원칙의 필연적 귀결 또는 구체적인 갈라티아인들의 상황에의 적용’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의 길’과 ‘율법에 따른 행위를 통한 의로움의 길’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먼저 ‘문제 제기-질문’(21절)을 던진 후, 바오로는 사라와 하가르 이야기로 성경에 근거한 논증(22-27절)을 시작하며 이사와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토대를 둔 ‘결론-답변’(28-31절)으로 화룡점정(畫龍點睛)에 이른다. 논증적·수사학적 관점과 신학적·해석학적 관점에서 갈라 4장 속 바오로의 성경에 근거한 논증을 조망할 때, 4,22-27은 ‘우의’에 해당하고 4,28-31은 ‘예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 나가는 말

본고는 ‘갈라 4,28-31이 우의인가? 예형론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연구 본문에 대한 바오로의 해석학적 접근법이 ‘우의’라는 주장과 ‘예형론’이라는 주장으로부터 본 논

98) 참조. Lémonon, *Galates*, 166.

문은 연구 방법론의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의견은 팔레스티나 유다교 전통에 근거한 ‘우의’와 디아스포라 유다교 전통에 근거한 ‘우의’로 나뉘는데, 갈라 4,28-31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유다계 ‘우의’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의견은 연구 본문이 ‘예형론’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3단계의 논증 과정을 거쳤다. 첫째, 제1 바오로 서간(로마 5,12-15; 1코린 10,1-6; 2코린 3,13-18)에서 드러나는 예형론적 특징들(‘상황의 유사성’과 ‘예고와 성취의 관계’)을 규합(糾合)한 후, 갈라 4,28-31에 이 특징들을 적용했다. 둘째, 연구 본문이 ‘이사악-그리스도의 암묵적 예형론’이라는 본고의 가설을 갈라 3-4장의 성경에 근거한 논증과 갈라 5장의 권고·교훈 부분에 근거하여 논지를 강화했다. 셋째, 갈라 4,22-27과 4,28-31 사이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를 각각 ‘우의’와 ‘예형론’으로 규명했고 연구 본문에서 ‘상속’, ‘박해’, ‘추방’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해석학적 주제를 도출해냈다. 그럼에도 고대 유다교 전통에 비추어 이사악과 이스마엘 사이 ‘상속’, ‘박해’, ‘추방’이라는 신학 주제를 갈라 4,28-31에 적용하는, 훨씬 더 포괄적·거시적·체계적 차원의 연구가 요청된다. 이는 본 연구가 다른 연구들로 이어지며 보완되고 그 완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면 본고의 연구 본문은 오늘날의 독자에게 어떤 화두(話頭)를 던져주는가? 수십 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 측과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한 아랍인 측의 분쟁·전쟁 사태를 목격한다. 이 같은 갈등·대립의 원인으로 경제적·종교적·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작은 해석학적 실마리를 갈라 4,28-31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갈라 5,6)라는 바오로의 메시지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 숙고(熟考)해야 할 공통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 참고문헌

- 루터, 말틴(Luther, Martin), 『말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상)』, 제1-4장, 1535년판, 김선희 옮김, 용인: 루터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바르비에로, 잔니(Barbiero, Gianni),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4.
- 송창현, 「‘다마스쿠스 문서’3: CD IV 12-VIII 21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133(2020, 11-12월), 10-14.
- 스탬베르거, 귄터(Stemberger, Günter), 『미드라쉬 입문: 라삌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개론, 선택 본문과 해석』, 유다 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수민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72).
- Alexander, P.S., *The Targum of Canticles*, The Aramaic Bible the Targums 17A,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 Bonnard, P., *L'Épître de Saint Paul aux Galates*,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9,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1972<sup>2</sup>.
- Bonsirven, J., *Exégèse rabbinique et exégèse paulinienne*, Paris: Beauchesne et ses fils, 1938.
- De Boer, M.C.,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Écrit de Damas”, trans. A. Dupont-Sommer, in A. Dupont-Sommer - M. Philonenko, ed.,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Gallimard, 1987, 133-183.
- García Martínez, F., - Tigchelaar, E.J.C., ed.,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1, Leiden - Boston - Köln: Brill, 1997.
- Gerber, D., “Ga 4,21-31 ou l’indéfinissable méthode?”, in *Typologie biblique de quelques figures vives*, ed., R. Kuntzmann - P. Beauchamp - E. Bons - C. Coulot et alii, *Lectio Divina* hors-série, Paris: Cerf, 2002, 165-176.
- Grelot, P., “La naissance d’Isaac et celle de Jésus sur une interprétation ‘mythologique’ de la conception virginale”, *Nouvelle Revue théologique*, 94/5-6(1972), 462-585.
- Hanson, R.P.C., *Allegory and Event. A Study of the Sources and Significance of Origen’s Interpretation of Scripture*, Louisville -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Hays, R.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Légasse, S., *L'épître de Paul aux Galates*, Lectio Divina Commentaires 9, Paris: Cerf, 2000.
- Manns, F., "Le Targum du Cantique des Cantiques. Introduction et traduction du codex Vatican Urbinati 1", *Liber Annuus*, 41(1991), 223-301.
- Matta, Y., *À cause du Christ: Le retournement de Paul le Juif*, Lectio Divina, Paris: Cerf, 2013.
- Philo of Alexandria, *Philo I*, trans. F.H. Colson - G.H. Whitak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1.
- \_\_\_\_\_, *Philo II*, trans. F.H. Colson - G.H. Whitak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Philo III*, trans. F.H. Colson - G.H. Whitak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8.
- Senft, C., *La première Épître de Saint-Paul aux Corinthiens*,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7, Neuchâtel - Paris, Delachaux & Niestlé, 1979.
- Witherington III, B., *Grace in Galatia: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W.B. Eerdmans, 1998.

## 갈라 4,28-31은 우의인가? 예형론인가?

김상우

본고는 갈라 4,28-31이 ‘우의’인지, ‘예형론’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연구 본문을 ‘우의’로 읽어야 한다는 가설과 ‘예형론’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가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방법론이다.

첫째, 4,28-31은 고대 유대교 전통에 따른 ‘우의’의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 둘째, 제1 바오로 서간 속 예형론의 특징들에 근거할 때 연구 본문을 ‘이사악-그리스도의 잠재적 예형론’으로 읽을 수 있는 해석학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셋째, 4,22-27과 4,28-31 사이 논증적-수사학적 상관관계는 각각 ‘우의’와 ‘예형론’의 논증 과정으로 분석된다.

특별히 본고는 4,28-31에 대한 바오로의 해석학적 접근법을 밝힘으로써, 이사악과 이스마엘 사이 ‘상속’, ‘박해’, ‘추방’ 같은 고대 유대교 전통의 신학 주제들이 바오로의 논증과 어떤 점에서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맺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를 예고한다.

**주제어:** 갈라티아서, 우의, 예형론, 이사악과 그리스도, 그리스도론적 해석

## Is Gal 4:28–31 an Allegory or a Typology?

Kim, Sang-Woo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Gal 4:28-31 is an ‘allegory’ or a ‘typology’.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is to closely examine the hypothesis that the study text should be read as ‘allegory’ and the hypothesis that it should be defined as ‘typology.’

First, 4:28-31 does not exactly meet the standards of ‘allegory’ according to Ancient Jewish Tradition. Seco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ypology in the First Pauline Letter, the hermeneutical possibility of reading the study text as ‘Potential Typology of Isaac-Christ’ is open. Third, the argumentative and rhetorical correlation between 4:22-27 and 4:28-31 is analyzed through the argumentation process of ‘allegory’ and ‘typology’, respectively.

In particular, clarifying Paul's hermeneutic approach to 4:28-31, this paper foreshadows future research on how theological themes of Ancient Judaism, such as “inheritance”, “persecution” and “expulsion” form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with Paul's argument.

**Key Words:** Galatians, Allegory, Typology, Isaac and Christ, Christological Interpretation

---

논문 투고일	2023년 11월 5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30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

---